

2020년 8월 1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테슬라 효과로 급등한 대형 기술주와 미 증시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바이오 업종 강세 Vs. 금융, 항공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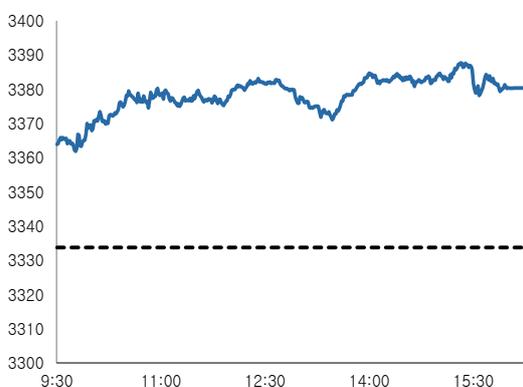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성장주 급등

미 증시는 스타일별 순환매 속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특히 테슬라(+13.12%)가 주식분할로 급등한 후 여타 대형 기술주도 주식분할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우호적. 더불어 미-중 마찰 우려가 완화된 점, 추가 부양책 협상 기대도 우호적. 다만 은행주의 경우 상승 출발 했으나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속 조정을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특징(다우 +1.05%, 나스닥 +2.13%, S&P500 +1.40%, 러셀 2000 +0.52%)

미 증시는 ①주식분할 ②미-중 무역마찰 ③물가지표 및 연준위원들의 발언 ④추가 부양책으로 변화. 먼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해 1991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을 기록. 이번 상승이 인플레이션 급등의 신호 보다는 경기 침체에서 회복 된 것으로 추정. 이 결과 장 초반 금융주 상승 출발을 이끔. 그렇지만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코로나에 대한 안일한 조치가 경기 회복 둔화를 야기 시켰다” 라고 주장하는 등 연준위원들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금융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의 약세를 초래

그렇지만 대형 기술주와 제약, 바이오 등 성장주의 강세가 확대되며 미 증시는 대체로 상승. 특히 애플에 이어 테슬라 주식분할이 추세적으로 아마존을 비롯한 FANG 등 기술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관련 종목의 상승폭이 확대. 시장은 주식분할이 젊은층의 주식 접근이 쉬워질 수 있다며 추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분석. 한편, 15일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협약 이행 관련 회담을 앞두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커들로 국가경제 위원회 위원장이 “긴장은 있지만 합의 파기는 없다” 라고 주장해 관련 우려를 일축한 점도 성장주 강세 요인. 더불어 전일부터 급등락을 보여왔던 금과 은 등 상품 시장이 안정을 찾은 점도 우호적. 물론 추가 부양책 관련 펠로시 하원 의장이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는 여전 했으나 민주당이 일부 양보하며 우려를 확산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432.35	+0.57	홍콩항셍	25,244.02	+1.42
KOSDAQ	845.60	-1.70	영국	6,280.12	+2.04
DOW	27,976.84	+1.05	독일	13,058.63	+0.86
NASDAQ	11,012.24	+2.13	프랑스	5,073.31	+0.90
S&P 500	3,380.35	+1.40	스페인	7,296.00	+0.45
상하이종합	3,319.27	-0.63	그리스	634.97	+1.37
일본	22,843.96	+0.41	이탈리아	20,437.36	+1.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주식분할 이슈 부각된 기업들 강세

테슬라(+13.12%)가 5:1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 젊은층의 적극적인 순매수 기대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2.85%)와 2차전지 ETF(LIT: +1.36%)도 동반 상승했다. 애플에 이어 테슬라의 주식분할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자 시장에서는 아마존(+2.65%), 넷플릭스(+1.83%), 알파벳(+1.80%), NVIDIA(+5.44%)는 물론 여행업종인 부킹닷컴(+0.16%), 자동차 부품 회사인 오토존(+1.43%), 음식점 체인점인 치포솔 멕시코 그릴(+1.20%) 등도 주식분할을 발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승했다. 애플(+3.32%)은 아이폰 수요 증가 기대가 높으며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 되자 강세를 보였으며 스카이웍(+4.41%), 퀴보(+2.99%) 등 부품주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JP모건(-0.85%), BOA(-0.71%), 웰스파고(-0.51%) 등 금융주는 장 초반 인플레이 압력에 기반해 2% 넘게 급등했으나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국채금리 상승폭이 축소되자 하락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3.78%), 카니발(-3.98%) 등 일부 경기 민감주도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보잉(-2.60%), 델타항공(-1.86%) 등 항공업종은 TSA가 이날 발표한 공항 이용객수가 56만명으로 급감하자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시스코(+1.93%)는 5% 넘게 급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78%	대형 가치주 ETF(IVE)	+0.72%
에너지섹터 ETF(OIH)	+0.81%	중형 가치주 ETF(IWS)	+0.38%
소매업체 ETF(XRT)	+0.79%	소형 가치주 ETF(IWN)	-0.03%
금융섹터 ETF(XLF)	-0.28%	대형 성장주 ETF(VUG)	+2.00%
기술섹터 ETF(XLK)	+2.27%	중형 성장주 ETF(IWP)	+1.1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17%	소형 성장주 ETF(IWO)	+0.78%
인터넷업체 ETF(FDN)	+0.98%	배당주 ETF(DVY)	+0.23%
리츠업체 ETF(XLRE)	+1.26%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7%
주택건설업체 ETF(XHB)	+1.4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00%
바이오섹터 ETF(IBB)	+1.46%	미국 국채 ETF(IEF)	-0.30%
헬스케어 ETF(XLV)	+1.68%	하이일드 ETF(JNK)	+0.21%
곡물 ETF(DBA)	+0.75%	물가연동채 ETF(TIP)	+0.08%
반도체 ETF(SMH)	+3.15%	Long/short ETF(BTAL)	+1.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90.07	+0.53%	+2.69%	+2.13%
소재	393.64	+0.63%	+1.40%	+3.50%
산업재	655.94	+0.36%	+5.46%	+8.47%
경기소비재	1,187.44	+1.67%	+1.92%	+6.19%
필수소비재	658.21	+1.34%	+1.63%	+4.91%
헬스케어	1,247.96	+1.72%	+0.49%	+2.36%
금융	418.90	-0.29%	+3.72%	+4.34%
IT	2,002.61	+2.31%	+0.03%	+5.78%
커뮤니케이션	196.35	+1.25%	+1.86%	+2.88%
유틸리티	309.61	+1.45%	+1.50%	+4.83%
부동산	224.67	+1.32%	+0.70%	+3.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의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3%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35%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3.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최근 약세를 보여왔던 대형 기술주가 테슬라 효과로 급등하며 상승했다. 특히 중국과의 마찰이 일부 완화 된 점, 추가 부양책 관련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민주당이 금액에 대해 일부 양보를 한 점등도 긍정적이었다. 여기에 전일 갑작스럽게 변동성을 키웠던 금과 은은 물론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는 등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이슈가 많았다. 이러한 요인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임을 감안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 6 월 만기일 이후 3.7 만계약 순매수를 해오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달러 약세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최근 이어왔던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ETF 로의 자금 유입이 크지 않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달러 약세가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산에 기인 했다가 보다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결과로 추정 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 기대가 약화 될 수 있어 지수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1991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 기록

7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mom +0.6%)와 같은 전월 대비 0.6% 상승 했으나 예상(mom +0.3%)을 상회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1.0% 상승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달 발표(mom +0.2%)를 상회한 전월 대비 0.6% 상승해 1991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율로 전년 대비로 1.6% 상승했다.

영국 2 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20.4% 위축 되었다. 한편, 전월 대비로는 8.7% 증가해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다.

영국 7 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9.3%를 기록해 지난달(mom +6.2%)를 크게 상회했으며 제조업 생산도 11.0% 증가해 예상(mom +10.0%)을 상회했다. 반면, 유로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9.1% 증가에 그쳐 전월(mom +12.3%)은 물론 예상(mom 10.1%)을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금, 은 안정 속 국제유가 2.6%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EIA 원유 재고 보고서 결과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전일과 달리 금과 은의 변동성이 완화되며 안정을 찾은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EIA 는 지난 주 원유 재고가 451 만 배럴 감소하며 3 주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 해 긍정적이었으며 가솔린도 72 만 배럴, 정제유도 232 만 배럴 감소한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약세를 보였다. 특히 펠로시 하원 의장은 2 조 달러 규모로 민주당 안을 완화 시키며 공화당에게 증액 후 협상하자고 주장했으나 백악관은 대규모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해 불안감을 더욱 높였다. 유로화는 산업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 또한 개별 국가별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터키 리라화는 달러 대비 1.5%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1991 년 이후 가장 큰 전월 대비 0.6% 상승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여전히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최근 10 개월간 224% 급증 했던 점도 영향을 줬다. 이는 S&P 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5 배)를 하회한 2.41 배를 기록했으나 간접입찰이 12 개월 평균(60.0%) 보다 증가한 65.4%를 기록해 영향은 제한 됐다.

금은 전일 급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급락을 뒤로하고 달러 약세 등에 기반해 반등에 성공했다. 은 가격도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혼조 약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6% 철근은 0.67%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2.67	+2.55	+1.14	Dollar Index	93.411	-0.23	+0.58
브렌트유	45.43	+2.09	+0.58	EUR/USD	1.1787	+0.40	-0.64
금	1,949.00	+0.14	-4.89	USD/JPY	106.85	+0.34	+1.18
은	25,979	-0.27	-3.39	GBP/USD	1.3024	-0.18	-0.69
알루미늄	1,787.00	+0.06	+1.13	USD/CHF	0.9121	-0.51	+0.40
전기동	6,432.50	+0.73	-0.95	AUD/USD	0.7163	+0.28	-0.40
아연	2,401.00	-0.37	-0.33	USD/CAD	1.3253	-0.36	-0.10
옥수수	327.25	+1.16	+1.24	USD/BRL	5.4301	+0.89	+2.60
밀	500.00	-0.74	-3.38	USD/CNH	6.9326	-0.13	-0.16
대두	883.00	+1.09	+0.48	USD/KRW	1185.30	-0.03	-0.29
커피	114.25	+0.57	-7.41	USD/KRW NDF1M	1183.82	-0.16	-0.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66	+2.49	+11.87	스페인	0.300	+2.30	-0.70
한국	1.380	+3.50	+8.80	포르투갈	0.322	+2.80	-0.10
일본	0.045	+1.20	+2.70	그리스	1.078	+0.90	+3.90
독일	-0.447	+3.10	+5.90	이탈리아	0.960	+1.90	-1.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